

호러스 G. 언더우드, 화충(和衷)의 길을 나서다¹⁾

정운형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1. 들어가는 말

호러스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7.19.~1916.10.12., 한국 이름: 元杜尤, 이하 ‘언더우드’)는 19세기 말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²⁾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 중반까지 “가장 먼저 하늘의 빛을 맞이하는 나라(朝鮮)”³⁾에서 활동한 프로테스탄트(이하 ‘개신교’) 선교사이다. 그는 근대식 교육, 번역, 교회 설립, 신문 발간 등 다양한 사업으로 개신교 정착의 토대를 갖추는 데 이바지한 까닭에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은 편이다.⁴⁾

언더우드에 관한 초기 연구는 1차 자료를 발굴·수집해 자료집을 편찬하는 것이었다.⁵⁾ 이후 자료집을 토대로 그의 활동과 업적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언더우드가 선교지를 바꾸어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한 동기와 배경 및 조선으로 오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⁶⁾ 인도에서 조선으로 선교지를 변경하는 과정과 뉴욕 집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는 여정에 관한 연구는 조선에서 전개한 그의 선교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

이 글은 언더우드가 작성한 선교사지원서⁷⁾와 조선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쓴 편지⁸⁾를 소개하는 글로 본문을 이루고, 그에 앞서 언더우드 일가(一家)의 미국 이주와 정착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언더우드가 ‘화충(和衷)’의 길을 연 선교사임을 밝히 드러내고자 한다. 달리 표현하면,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오는 여정을 살펴

-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언더우드의 선교 활동과 애민(愛民) 사상」(2017.2) 제Ⅱ장을 보완한 것임.
- 2) 제국주의에서 ‘제국’(帝國)이라는 말과 그 개념은 일본의 난학파(蘭學派) 지식인들에 의해 라틴어 *Imperium*에서 기원한 Empire와 네덜란드어 ‘keizerrijk’ 등의 서양 개념을 ‘帝國(teikoku)’으로 번역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吉村忠典, “‘帝國’ という概念について”, 『史学雑誌』108편 3호, (1999.3), 344~367.
- 3) Chosen 朝鮮 which means, “It received the sunlight earlier than the others.” W. C. Rufus, “Astronomy in Korea”, *Transactions*, Vol. 26, (1936), 8.
- 4) 2020년 8월 현재, 90여 명의 연구자가 언더우드에 관한 다양한 주제-교육, 선교, 교회 설립, 번역(성서, 찬송가, 전도용 책자 및 음식 관련 책 등), 한국어, 신앙과 사상, 한국 인식, 정교분리 등-로 학술지(46) 및 학위논문(석사 44, 박사 11)으로 발표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참조; 한편, 언더우드기념강좌에 참여한 18명의 학자는 언더우드의 생애, 사상, 활동 및 업적을 중심으로 발표했다(2001~2016).
- 5) 자료집으로 김인수,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 1885~1916』(2002),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Ⅰ~Ⅴ,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2015), 언더우드기념사업회 엮음, 『언더우드의 마지막 메시지』(2016) 등이 있다. 번역서로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의 시작 이야기』(2015, 1990년 개정판), 한창덕, 『동아시아의 종교』(2012), 서정민, 『韓國과 언더우드』(2004), 한동수, 『와서 우릴 도우라 : 한국 교회 초기 선교역사』(2000),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 우리나라 근대화와 선교활동』(1991), 이광린, 『韓國 改新教 受容史』(1989) 등이 있다.
- 6) 정운형, 「호러스 G. 언더우드의 선교지 결정과 출발」, 『동방학지』 제175집, (2016.9.).
- 7) Horace G. Underwood, Letter to Frank F. Ellinwood, (July 10th, 1884). 이 연구에 사용한 언더우드의 선교사지원서 사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우에게 2016년 12월 20일 받았다.
- 8) Horace G. Underwood, Letter to Helen, (Dec. 22nd, 1884).

세상이 ‘교회가 무엇을 위한 곳인가’보다 ‘교회가 반대하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교량적 역할을 재고하는 것이다.

2. 언더우드 일가의 미국 이주 및 정착

언더우드 가(家)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언더우드의 할아버지 토머스(Thomas Underwood, 1795~18?)는 런던이 금융 중심지로 변화하던 때 그의 동생과 함께 서점을 운영했다.⁹⁾ 그리고 언더우드의 아버지 존(John Underwood, 1827~1881)은 제조 화학자(Manufacturing Chemist)로¹⁰⁾ 1872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¹¹⁾ 곧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개인적 성취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미국으로 이주해 뉴저지주 노스버겐(North Bergen, Hudson, New Jersey)에 정착했다. 언더우드는 1873년 프랑스에서 둘째 형 프레드(Frederick Wills, 1858~1892)¹²⁾와 공부하던 중 두 형, 막내 여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아버지와 합류했다.¹³⁾

언더우드의 만형 토머스(John Thomas Underwood, 1857~1937)는 아버지를 여윈(1881) 이듬해 브루클린에 ‘Underwood J. & Co.’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1894년부터는 타자기 사업에 진출해 사무작업의 가속화에 일조했다.¹⁴⁾ 1898년부터 ‘언더우드 타자기’를 출시한 데 이어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 공장을 세워, 타자기를 대량 생산하며 전 세계에 대리점을 여는 등¹⁵⁾ 세계 최고의 타자기 회사(as the number one typewriter manufacture in the world)¹⁶⁾ 경영자로 자리매김했다(1915). 프레드는 토머스의 사업을 도왔다.

언더우드는 헤스브룩학원(Hasbrouck Institute)을 졸업한 후 메이번 목사에게 헬라어를 배우고, 1877년 9월 19일 뉴욕대학교(University of the City of New York)에 입학했다.¹⁷⁾ 당시 뉴욕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다음의 필요조건을 갖추어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했다.¹⁸⁾

9) 정운형, 「언더우드의 선교 활동과 애민(愛民) 사상」, 18~19.

10) 존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듬해부터 미국은 대불황(1873~1879)에 빠져들었다. 산업 및 정치 엘리트들이 국가를 장악해 부의 피라미드를 안정화하려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이민 노동자 및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났다. Howard Zinn,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 2001), 253~254; *The Underwood Families of America*, Vol. 2, Ed. by Howard J. Bunker, (Lancaster, PA.: Press of the New Era Printing Company, 1913), 625.

11) William V. V. Mabon, Letter to the Sac'y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July 3rd, 1884).

12)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8), 19; ; *The Underwood Families of America*,

13) 언더우드의 큰누나 한나(Hannah E. Underwood)는 베드포드(Bedford, St. Paul)에서 공부를 마치고 1875년 가족과 합류했다.

14) Howard Zinn,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5) *The Underwood Families of America*,

16)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 1859~1885』, 114.

17) William V. V. Mabon, Letter to PCUSA, (July 3rd, 1884);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우리나라 근대화와 선교활동』,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류대영, 「언더우드 청년운동의 세속적-사상적 배경」, 『언더우드기념강연집』,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 1859~1885』,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참조.

18)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 1859~1885』, 152.

수 학: 대수(2차방정식까지), 평면 기하학
 라틴어: 카이사르의 갈리아전기(4권):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6권): 키케로 연설(6선): 살루스티우스의 카틸리나: 살루스티우스의 유구르타 혹은 베르길리우스의 목가: 아놀드의 라틴어 작문(12장)
 헬라어: 크세노폰의 아나비시스(3권):, 호머의 일리아드(1권) 및 운율학
 기초 필수: 산술과 영문법, 지리, 미국 역사, 헬라어 및 로마 고전

뉴욕대학교는 4년제로 문과(Dept. of Arts)를 비롯해 4개의 학과가 있는데, 문과와 이과(Dept. of Science)는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문과생으로 매 학년 헬라어, 라틴어, 웅변 과목을 수강했으며, 재학 중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했다. 그중 헬라어, (분석)화학, 분석기하학, 근대사, 철학, 논리학, 국제법, 헌법, 윤리학 과목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그리고 “델타 워싱턴(ΔY)”과 문학토론회 “Philomathean Society”의 회원·임원으로 그리고 교지 *The University Quarterly*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졸업을 보름 앞둔 1881년 6월 7일 아버지를 여의어 예정된 졸업 연설, “The Valley of Glencoe-As it is and as it was”¹⁹⁾는 하지 못했다.

한편, 여동생 헬렌(Helen M. Underwood, 1862~1942)은 언더우드가 1884년 12월 22일 기차 안에서 쓴 편지의 수신자이다.

3. 언더우드의 선교지 결정 과정

(1) 선교지원서

언더우드는 스코틀랜드 장로회와 회중교회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 미국에서는 1874년 12월 5일부터 온 가족이 그로브개혁교회(Grove Reformed Church)에 적을 두었다.²⁰⁾ 이러한 배경으로 1881년 9월 20일 화란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 in U. S. A.)에서 운영하는 뉴브런즈윅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했다.

어려서 가졌던 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헌신 관련은 언더우드가 작성한 선교사지원서에서 확인된다.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선교사지원서는 1884년 7월 10일에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²¹⁾ 모두 21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헌신한 시기를 비롯해 선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담고 있다.

언더우드는 뉴브런즈윅신학교를 갓 졸업한 것과 강도사 자격을 가졌다는 말로 시

19) Glencoe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큰 골짜기이다. 언더우드는 명예혁명 때 이 골짜기 마을에서 발생한 대학살 사건 또는 신·구교 갈등을 소재로 연설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20)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떠난 이듬해 토머스과 프레드는 브루클린으로 이사하면서 라파예트(Lafayette) 교회로 이적했다.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 1859~1885』, 각주 51 재인용.

21) Horace G. Underwood, Letter to Frank F. Underwood, (July 10th, 1884) ;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3; 한편, 브라운은 선교의 근본적인 동기를 그리스도 정신의 체험, 인류의 그리스도에 관한 갈망(요구),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설명한 후 2차 동기로 자선활동, 지적 동기, 상업적, 문명화, 역사적 당위성을 들었다.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救主)로 납득하게 하는-이 활동은 예수의 지상사역이었다-것, 곧 세계인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는 것을 선교의 목표라고 했다. Arthur J. Brown, *The Foreign Missionar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7), 13~34.

작해, 신입생일 때 “이교도를 선교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생을 해외선교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밝혔다. 해외선교에 나서려는 이유를 “곡식을 추수하는 데 필요한 일꾼이 되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수정(李樹廷, 1842~1887)²²⁾의 글을 읽을 때까지 세포이 항쟁(Revolt of 1857) 이후 영국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인도를 마음에 품었다.

저는 해외선교의 소명을 따르려고 했지만, 몇 달 전 이수정이 조선 사람에게 선교사를 보내 달라는 간절한 글을 읽기 전까지 가야 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소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심정으로 주시해왔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제가 속한 교단(화란개척교회-인용자) 선교부에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중략) 그렇게(언젠가 길이 열릴 거라며-인용자) 기다리던 중 몇 주 전에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에서 조선에 선교부를 개설할 의료선교사를 임명하고 그와 함께 보낼 안수 받은 목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²³⁾

해외선교에 관한 분명한 소신이 있었지만, 언더우드는 이수정의 글을 읽을 때까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수정의 글은 1884년 1월 26일 자 기독교 주간지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에 게재된 “The Gospel for Korea”²⁴⁾이다. 언더우드는 1882~’83 겨울에 알트만스(Albert Olthmans, 1854~1939)를 만났을 때 ‘인도는 나의 선교지’라고 믿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으로 의학을 공부하며 한국에 나갈 선교사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다.²⁵⁾ 그런데 언더우드는 신학교를

22) 이수정은 한때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의 검종(謙從)이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민첩해 일찍이 문자를 해독해 유력한 실력자들과 교류했는데, 그중 쓰다센(津田仙, 1837~1908)을 소개한 안종수(安宗洙, 1859~1896)가 있다. 이수정은 조선 정부가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1882.8.30)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해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할 때, 고종의 밀유(密諭)를 수행하는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개종한 후 미국성서공회의 성서번역 사업에 참여했다. “我國人李樹廷本芸樞家僕從, 人甚巧慧捷給, 頗解文字....” 朴戴陽, 『東槎漫錄』, (필사본, 간사자 미상, 1884); “其他正使隨員從者とも六名また遊覽として同行されし同國の人々は閔泳翊朴義秉李樹廷, 金玉均諸氏並びに従者等にて總員三十名ほどなりとず,” 『讀賣新聞』, (1882.10.15.); “朝鮮人は同國特命全權公使朴永孝, 同副使金晚植, 金祐定, 隨員朴齊徊, 邊遂, 金玉均同參判閔泳翊, 同隨行徐光範, 李樹廷, 朴義秉, 金色良忍此外從子四人なりしといふ,” 『時事新報』, (1882.10.16.); “韓使一行: 今度來港せし朝鮮使節の官姓名は正使朴永孝, 副使金晚植, 從事官徐光範, 正使隨員前五衛柳赫魯, 前別提李福煥, 幼學朴齊綱, 生徒朴命和, 朴裕宏, 正使從者金風均, 副使隨員幼學金裕定, 邊燧, 幼學金龍鎮, 副使從者曹漢承, 朴永俊, 進士邊錫胤, 密使金玉均, 外遊監朝士閔泳翊, 朴義秉, 李樹廷, 李占戶, 等....” 『東洋新報』, (1882.10.18.); 日本 外務省, 「朝鮮國使節到着御届ノ件」, 『日本外交文書』第15卷, (明治15年), 294~295; H. Loomis, Letter to E. W. Gilman, (June 11th, 1883); “Korea open to the Gospel,” *The Missionary Review*, Vol.VI. (Nov.-Dec. 1883).

23) Horace G. Underwood, Letter to Frank F. Ellinwood, (July 10th, 1884).

24) 이 글에는 “나의 조국 일천만 동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알지 못해 이교도로 살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조선은 다른 나라에 개방했고, (중략)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기독교인을 찾아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교회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일본-인용자)에서 서둘러 그들의 선교사를 보낼까 두렵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The Gospel for Korea,”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 (January 26th, 1884), 46.

25) Horace G. 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졸업하기 전에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 달라고 지원했다. 그 시기는 1884년 2월이다(The Board received an application in February, from a student in the Theological Seminary at New Brunswick, to be appointed and sent as a Missionary of the Reformed Church to Korea).²⁶⁾

1883년 겨울에서 1884년 2월 사이에 선교지를 변경하게 된 사정이 일어난 것이다.

(2) 선교지 갈등과 결정

언더우드 가 가야 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몇 달’은 알트만스를 만났을 때 부터²⁷⁾ 이수정의 글을 읽은 때로 추정되는 1월 말까지이다. 그 기간에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 ① 목회자가 비어있는 폼프턴교회에서의 여름 사역,²⁸⁾
- ② 럿거스대학 대학원에서 뉴욕대학교 대학원으로의 전학(1883.9),²⁹⁾
- ③ 제4차 신학교 간 선교사 연맹 집회(*the Four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Inter-Seminary Missionary Alliance*, 1883.10.25 ~ 28)³⁰⁾ 참석

이 가운데 폼프턴교회의 사역은 인도 선교를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학원 전학은 선교지를 변경하게 할 만큼의 결정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제4차 신학교 간 선교사 연맹 집회(1883.10.25~10.27)에 참석해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의 *Corea, the Hermit Nation*(1882)을 읽었고,³¹⁾ “모라비안의 모범을 따라 고통받는 세상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³²⁾ 언더우드는 그리피스의 책을 통해 복음을 모른 채 사는 조선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후에 국가적 치욕을 당하는 민족을 위해 “100만 명 구령운동”(Million

August 27, 1909(hereinafter ‘Reminiscences’), 98.

26) 1884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hereinafter ‘ARRCA’), 13; Henry N. Cobb, Henry N. Cobb, *A Century of Missions in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1796-1896*, (New York: Board of Foreign Missions, Unknown Binding), 76.

27) 뉴브런즈윅신학교 교회사 명예교수인 John W. Coakley는 조선 선교를 외친 알트만스가 뉴브런즈윅 신학교의 학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언더우드의 조선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의 연대기가 불확실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당시 알트만스는 Hope College 4학년 학생이었으며, 뉴브런즈윅신학교 사전 답사와 더불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른 조선의 개방과 선교사의 필요성에 관한 논문을 작성해 뉴브런즈윅 재학생들과 나누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28) Lillias H. Underwood, *op.cit.*, 1918, 31 ~ 32;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convened at Orange, N. J., May 1st, 1883, (Somerville, N. J.: The Unionist-Gazette Printing House, 1883), 31; *Minutes of the Particular Synod of New Brunswick*, Orange, N. J., May 6th, 1884, 29.

29)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 1859~1885』, 235 ~ 236.

30) “Inter-Seminary Missionary Alliance,” *The Missionary Review*, Vol. VII. No. 1, (January-February, 1884), 59~60.

31) 엘리자베스 언더우드, 『언더우드 후손이 쓴 한국의 선교 역사 1884~1934』, 변창욱 역,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3), 65.

32) 선교 관심을 일깨우는 세 가지는, 첫째, 동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라. 둘째, 설득할 때 통계를 이용하라. 셋째, 미래에 얼마나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라 이다. *Report of the Four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Inter-Seminary Missionary Alliance*, Princeton New Jersey, Oct. 24th, 25th, and 26th, 1884, 48, 62.

Campaign for Christ, 1910)을 준비하며,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 기도 후원자를 얻기 위한 캠페인에 그리피스를 초청했다. 그의 문필력(facile pen)을 잘 알기 때문이다.³³⁾

초청 연사의 강연을 듣고 새로이 깨달은 것도 있다. 선교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윤리체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³⁴⁾이다. 그 때문에 선택한 자에게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닌 성령의 일, 곧 하나님에 속한 것(Missio Dei)이어서 부르심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³⁵⁾라는 교훈도 들었다.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언더우드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비중을 두었던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것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조선에 관한 ‘의무감’³⁶⁾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렸다.

(3)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받은 언더우드

부름을 기다리는 언더우드에게 이수정의 글은 실물이자 증거였다.³⁷⁾ 가슴이 벅차 올랐고 동시에 결과를 기다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교차했다. 그런 가운데 든 생각은 자신이 속한 화란개혁신교회 해외선교본부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화란개혁신교회는 조선을 선교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언더우는 “조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화란개혁신교회는 두 차례(twice)³⁸⁾ 계속 보내 달라고 억지를 쓰는(forced to ask) 언더우드를 중국 푸젠의 샤먼(福建省 廈門, 아모이)에 보내고 싶어 했다.³⁹⁾ 개혁신교회가 언더우드를 “선교 열정, 능력, 태도 면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청년으로”⁴⁰⁾ 꼽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더우는 조선에 관한 의무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이하 ‘북장로회’)는 조선에 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해 1884년 4월 28일 헤론(John W. Heron)을 의료선교사로 임명했다.⁴¹⁾ 그리고 헤론과 동행할 목사 선교사를 찾았다. 이 소식을 접한 언더우는 즉각 반응했다. 소식을 접한 시기(“몇 주 전”)는 6월 초순으로 추정되며, 두 차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

33) Horace G. Underwood, Letter to William Ellion Griffis, (Oct. 16th, 1909).

34) *Report of the Four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Inter-Seminary Missionary Alliance*, 26; John W. Coakley, *op. cit.*, 각주 39.

35) *ibid.*, 74.

36) 1884 ARRC, 13; Horace G. Underwood, “Reminiscences,”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g Yang, August 27, 1909*(hereinafter ‘*Reminiscences*’), 98.

37) 언더우는 조선 선교 15주년을 맞이한 해에 조선선교회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수정을 두 번 언급했으나, 그를 만났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H. Loomis에 의하면, 이수정은 1887년 3월 7일까지 서울에 은거하고 있었다. 『언더우드 자료집 II』, 79~97.

38) *Reminiscences*, 98~99.

39) Henry N. Cobb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July 3rd, 1884);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 1859~1885』, 292.

40) William V. V. Mabon, Letter to the Sac’y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July 3rd, 1884).

41) J. W. Heron-Application & Appointment to Corea, Missionary, (Apr. 28th, 1884). *Minutes* V.4~5; Frank F. Ellinwood, Letter to John W. Heron, (Apr. 28th, 1884); 박형우, 「헤론의 생애와 내한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42, (2015.3), 168~169, 각주 53 재인용.

(Twice I had applied to the Presbyterian Board only to be told **it was useless**).⁴²⁾ 25년이 지난 언더우드의 기억을 신뢰할 때, 7월 28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된 것은 자신에게 차례가 올 것이라는 소망과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지 결정은 구체적인 정보와 요청 그리고 부르(보내 달라)는 소리에 응답한 결과이다.

4. 일본 군사시찰단과 함께 한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선교사 임명을 받은 후 런던으로 건너가,⁴³⁾ 일가친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거기서 그때까지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못한” 토머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뒤에서 다들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 등장하는 요코야마를 만났다.

잉글랜드에서 돌아온 언더우드는 11월 3일 뉴브런즈윅 교구로 이명(移名)해, 11월 11일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은 날 북장로회 저지시 노회로 이적(移籍)했다.⁴⁴⁾ 그리고 12월 2일 노회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추인을 받아,⁴⁵⁾ 10여 일 후 뉴욕을 떠났다. 뉴욕 집에서 출발한 언더우드의 행적을 여동생 헬렌에게 보낸 편지로 추적할 수 있다.

(1) 헬렌에게 쓴 편지

언더우드는 형 토마스와 함께 뉴욕을 떠나 시카고로 갔다. 12월 21일 밤 10시에 출발하는 샌프란시스코 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타자기를 내렸다. 그리고 형 토마스와 몇 시간 전에 헤어졌다는 글로 시작하는 편지를 썼다. 편지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편지에 언급된 ‘식사 후에 낮잠을 즐기는’ 육군경(the Minister of War)⁴⁶⁾ 오야마(大山巖, 1842~1916) 이야기와 일본 군사시찰단(the Party of Japanese Officers)이 작성한 일지에 “많은 눈(雪)과 화물 검사로 인해 오마하역(驛)을 5시간 늦게 출발했다”⁴⁷⁾라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편지는 “두세 통의 답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쓴다”라는 짧은 인사말에 이어 일본군인 이야기로 넘어간다. 언더우드는 일본 군인들과 같은 기차를 타고 간다는 사실과 지난여름 런던에서 만난 요코야마의 동료(partner)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기차 안에 함께 타고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42) *Reminiscences*, 99.

43)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6.

44) 1884 *ARRCA*, 416, 597; Arthur Mitchell, Letter to Horace G. Underwood, (October 3rd, 1884); Philo Adams Otis,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ian a History of the Oldest Organization in Chicago*, (London: Forgotten Books, 2013, Original work published 1913), 409~410.

45) 박형우 편역, 『언더우드 내한 관련 자료집 1859~1885』, 323.

46) ‘경’(卿)은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太政官) 체제에서 각 성(省)의 장관이다. 1872년 병부성은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되었으며, 육군경(陸軍卿)은 육군·육상 공군의 행정을 총괄했다. 1885년 12월, 내각제를 도입하면서 육군경은 육군대신(陸軍大臣), 육군대보(大輔)는 육군차관(陸軍次官)으로 개칭하였다. 田中嘉彦, 「日本の行政機構改革: 中央省庁再編の史的変遷とその文脈」, 『レファレンス』, (2015.9), 53~82; 齋藤憲司, 「日本における議院内閣制のデザイン」, 『レファレンス』, (2010.11), 3~30.

47) 野津道貫, 『歐美巡廻日誌』下巻, (廣島: 廣島鎮台文庫, 1886), 48.

언더우드와 불과 며칠 전에 뉴욕 해변에서 군사시찰단의 일원인 요코야마의 동료⁴⁸⁾를 만났었다.

이렇듯 언더우드는 일본 군사시찰단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운 편지를 여동생에게 보냈다. 편지 중에 군사시찰단과 관련된 언급은 다음과 같다.

- ① 군사시찰단원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행 기차를 타고 있다.
- ② 군사시찰단원들과 같이 (요코하마행-인용자) 증기선을 탈 것이다.
- ③ 군사시찰단원 중에 요코야마의 동료가 있다.
- ④ 식사를 마친 육군경이 낮잠을 즐기고 있다.
- ⑤ 군인 7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 ⑥ 군인들이 간간히 전통 가락(창가-인용자)을 읊조린다.

그런데 군사시찰단 구성원 중에는 동아시아 질서의 축이 된 그리고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⁴⁹⁾

① 오야마 이와오: 사쓰마번(薩摩藩) 출신으로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1877)을 일으킨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와 사촌 관계이다. 메이지 유신의 공신으로 일본 육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육군경, 육군참모총장으로 청일,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 서재필에 의하면, 오야마는 김옥균에게 정예 군대를 육성할 것을 권하며, 일본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에 대항하기를 원망(願望)했다.⁵⁰⁾

②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1841~1908): 사쓰마번 출신으로 조선 침략과 청일 전쟁의 주력부대인 5사단장을 역임했다. 군사시찰단이 유럽 제국의 병제(兵制)를 시찰하는 과정을 『歐美巡廻日誌』에 남겼다.

③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846~1926): 조슈번(萩藩) 출신으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의 후임 공사로 부임했다. 그의 부임은 삼국간섭을 계기로 조선 왕실이 주도적으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던 때였다. 미우라는 본국의 훈령을 따라 조선 왕실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낭인(浪人)⁵¹⁾을 동원해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했다.

④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1848~1899): 사쓰마번 출신으로 육군 참모차장 재임 중에 비밀리에 조선에 들어와(1893년), 청일전쟁 수행을 위한 철로 부설 예정지와 경복궁 등을 정탐했다. 그리고 고종을 알현할 때 변리공사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 1855~1935)를 배석게 해 방곡령 협상에 영향을 끼쳤다.⁵²⁾

⑤ 가쓰라 타로(桂太郎, 1848~1913): 조슈번 출신으로 청일전쟁 시 3사단장으로 참전했다. 훗날 총리에 올라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William H. Taft, 1857~1930)와⁵³⁾

48) 헬렌은 언더우드가 요코야마의 동료를 뉴욕 해변에서 만났던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

49) 「官廳彙報」, 『官報』 第188號, (明治 17年 2月18日); 「宮廷錄事」, 「官廳彙報」, 『官報』 第470號, (明治 18年 1月27日); *The Japan Weekly Mail*, (January 31st, 1885), 97.

50) 김옥균이 양무개혁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조선 개혁의 모델로 삼게 된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 『갑신정변 회고록』,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232.

51) 일본에서 “浪人”은 본적지를 떠나 유랑하는 사람이라는 浮浪의 의미까지 포함된 다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정치활동을 하는 이른바 재야정치인 또는 정치깡패란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강창일, 「일본 우익의 형성과 조선 침략」,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각주 2.

52) 徳富猪一郎, 『陸軍大將 川上操六』, (東京: 第一公論社, 1942), 115.

1905년 7월 29일 비밀협정을 맺어⁵⁴⁾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⑥ 이지치 고스케(伊地知幸介, 1854~1917): 가와카미 소로쿠가 비밀리에 조선을 방문할 때 부관으로 동행했다.⁵⁵⁾ 이듬해 5월, 부산에 파견되어 동학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1904년 1월 22일부터 대한제국 주재 공사관부무관(公使館付武官)으로 근무할 때, 대한제국을 일본 영토로 하든지 아니면 보호국화 할 것을 참모본부에 건의한 인물이다.⁵⁶⁾ 또한, 한일의정서 체결 당시 조선 내 반대파를 배제하는 데 공을 세웠다.

⑦ 하라다 데로타로(原田輝太郎, 생몰년 불상): 대한제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근무한 무관으로, 고종으로부터 2등 훈장을 수여했다.⁵⁷⁾

⑧ 데라우찌 마사타케(寺内正毅, 1852~1919). 프랑스 대사관 무관으로 하치스카(蜂須賀) 공사와 함께 군사시찰단을 영접했다.⁵⁸⁾ 훗날 조선 총독이 되어 조선의 독립과 기독교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105인 사건’을 조작했다.

(2) 부름의 재확인 and 화층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향하는 여정은 일본 군사시찰단의 동선과 거의 일치한다. 그는 이 여정을 통해 조선으로의 부름을 더욱 확신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편지에 인용한 시(詩) 한 구절, “보아주는 이 없어도 붉게 피는 장미”이다. 이 구절은 토머스그레이⁵⁹⁾의 시,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⁶⁰⁾에서 인용했다. 영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의 한 구절을 통해, 다소 어수선한 기차 안의 군상들과는 다른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카드놀이에 심취한 일본 군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추스르고 소명을 확인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된 자신을 여동생에게 전하고 싶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사시찰단과는 달리 현재도 앞으로도 조선의 부름에 다가가는 언더우드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 어쩌면 런던에서 들었던 토머스 선교사를 떠올렸을 수도 있다. 청교도의 후예라는 사실도, 지난 300여 년간에 걸쳐 유럽의 각 지역으로부터 그 위대한 나라로 이주해 온 정열적이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든

53) William H. Taft(1857~1930)는 T. Roosevelt 대통령(1901~1909) 당시 육군장관(1904~1908)을 역임했다. <https://www.whitehouse.gov/1600/presidents/williamhowardtaft>, (2019.09.09., 10:27 접속).

54) Tyler Dennett(1883~1949)는 1924년 가쓰라 태프트 비밀협정(Taft-Katsura Agreement/Memorandum)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 관계 연구』(문학과지성사, 2003), 35.

55) 徳富猪一郎, 『陸軍大將 川上操六』, 1942, 113.

56) 谷壽夫, 『機密日露戰史』増補, (東京: 原書房, 1978), 72.

57) 『高宗實錄』 고종 43년 3월25일(1906.4.18.): 「敍任及辭令」, 『官報』 第7019號, (明治 39年 11月20日).

58) 野津道貫, 『歐美巡廻日誌』下卷, 4.

59) Thomas Gray(1716~1771)는 영국 시인으로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는 그의 대표작으로 1750년에 완성되어 1751년 발표되었다. 이 시는 영국인들에게 널리 인용되는 시 중의 하나라고 한다. 게일 부인(Mrs. Harriet G. Gale)은 조선 여자들이 “남자들의 속된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운 일상으로 인해 구혼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을 “was born to blush unseen and waste her sweetness on the desert air.”로 설명하였다. Harriet G. Gale, “Hosanna, A Korean Woman,” *Woman's Work for Woman and Our Mission Field*, Vol. 9, (1894). 205~206.

60) “Full many a flower is born to blush unseen,” Cleanth Brooks, ed.,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on, 1976), 273~277.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의 결과⁶¹⁾의 연장선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치체제를 통해 더는 전쟁터를 떠올리지 않고 인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의 억압받은 사람들, 양심의권리, 개인적 권리를 상기하는 것도,⁶²⁾ 나아가 미국인이 그들의 훌륭한 제도 와 문화를 지구상에 전파할 사명을 타고난 선민(MenifestDestiny)⁶³⁾ 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Roses born to blush unseen”은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무엇”(which warn me that there are more in the car than those I see, and remind me of....)에 이어진 관용구이어서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 곧 일천 만에 이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야 하는 애타는 심정을 은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인간적인 욕구나 합리적인 반응을 넘어서 “하늘이 내려준 마음(降衷)”⁶⁴⁾을 따르 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고요(皐陶)⁶⁵⁾는 좋은 사람은 집안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을 화평케 한다고 했다.⁶⁶⁾ 여기서 ‘좋은’은 힘써 닦고 익혀 쌓은 덕(德)⁶⁷⁾을 한결같이 드러낸다는 뜻이 다. 덕의 근본은 하늘에 있고(道德原乎天), 인민의 본성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것 이다(惟皇上帝 降衷于民).⁶⁸⁾ 그러므로 덕을 쌓는 행위는 타고난, 곧 하늘을 공경하 는 개인의 몸가짐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⁶⁹⁾ 그리고 사람을 알고 이웃의 평안을 세우는(在知人, 在安民)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회(국가) 사이 에 안녕과 평화를 가져오려면 서로의 성품과 이치가 올바르게 됨을 위해 공경하며 하늘이 내린 속(天性)을 헤아려야 한다(同寅協恭 和衷)⁷⁰⁾

언더우드 는 기차 안에서 일본 군사시찰단 일행의 위용(偉容)을 목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세(威勢)에 위축되거나 의욕을 잃지 않았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동전 한 닢(one dime)도 나누었던”⁷¹⁾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피는 장미꽃’을 마음

61) “There is apparently much truth in the belief that the wonderful progress of the United State, as well as the character of the people, are the results of natural selection ; the more energetic, restless, and courageous men from all parts of Europe having emigrated during the last ten or twelve generations to that great country, and having there succeeded best.” Charles Darwin,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Vol. 1, (London: John Murray, 1871), 179.

62) “The Great Nation of Futurity,” *The United States Democratic Review*, Volume 6, Issue 23, 18?, 426~430.

63) Josiah Strong, *Our Country : It's Possible Future and It's Present Crisis*, (New York: Baker & Taylor, 1885), 208~227.

64) 유형원, 『반계수록』,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역, (여강출판사, 2001), 수록 서문.

65) “皐陶作士以理民,” 司馬遷, 『史記』 卷2, 27. 『史記』의 하본기는 「皐陶謨第四」의 내용을 인용했다.

66) 「皐陶謨第四」, 『尙書, 書經』, *Korean Database*, <http://www.krpa.co.kr.access.yonsei.ac.kr>, (2020.06.27., 18:20) 접속.

67) 고요가 이른 덕은 “寬而栗(너그럽고 엄함), 柔而立(부드럽고 꺾임), 愿而恭(삼가고 공손함), 亂而敬(다스리고 정중함), 擾而毅(유순하고 굳셈), 直而溫(곧고 온화함), 簡而廉(정성스럽고 검소함), 剛而塞(단단하고 충만함), 彊而義(굳세고 의로움)” 등 아홉 가지이다. 「皐陶謨第四」.

68) 유형원, 『반계수록』.

69) 몸가짐이 바르다는 것은 ‘타고난 기질과 품성’에 거리낌(拘)이 없고 인욕(人慾)에 가려지지 않음을 이룬 이다. 成百曉 譯註, 『大學·中庸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1), 23.

70) 「皐陶謨第四」.

71) Thomas C. Easton,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PCUSA, (July 5th, 1884).

속으로 되새겼.. 이는 “떨시와 차별을 당하는 여자와 어부에게 다가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선택한 하나님의 어린양,”⁷²⁾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무능한’ 전능자를 깊이 새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일본 군사시찰단에 의해 주입된 근대는 인간의 해방과 자율성을 원치 않는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 언더우드와 이들의 만남을 가벼이 다룰 수 없다. 이 만남은 조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한 언더우드에게 동양, 특히 조선에 관한 인식, 나아가 자기의 소명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여정이었다.

5. 나서는 말

1797년 10월 중순, ‘코가 높고 눈이 파란(鼻高眼碧)’⁷³⁾ 사람들이 조선을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갔다. 그로부터 87년 후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11년 동안 살았던 미국을 떠나 조선을 향했다. 그는 런던 태생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인도에서 조선으로 선교지를 변경하며 선교사를 지원했다.

언더우드의 선교지 변경은 그의 변화된 선교관을 반영한다. 즉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부름에 다가갈 때 4차례나 거부당하는 실패를 겪었다. 때가 무르익지 않은 데다 교단이 달라서였다. 조선에 관한 정보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리피스 *Corea, the Hermit Nation*(1882)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1884년 여름에 런던에서 한 일본인을 만났다. 그리고 조선으로 출발하기 얼마 전에 그 일본인 동료의 일행인 군사시찰단과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 1884년 12월 21일 밤부터(24, 25일 제외) 이듬해 1월 25일 아침까지 동행했다. 그 여정은 언더우드가 소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기간이었다.

여동생 헬렌에게 쓴 편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더우드는 한적한 시골교회의 묘지에 홀로 핀 장미를 생각하며 ‘화충’의 길을 나섰다.

72) 에라스무스, 『광우예찬』, 정기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5), 149.

73) “鼻高眼碧近似西洋國人而且見渠輩所持物貨之出示者即石鏡 琉璃瓶 千里鏡無孔銀錢而俱是西洋物貨倭譯中嫻於漢清等語者使之言語筆談則俱不曉解渠輩所言亦一未悟解” 『日省錄』, 正祖 21(1797)年 9月 10日, 규장각 원문서비스 <http://kyudb.snu.ac.kr/series/subView.do>, (2020.05.03., 07:00) 접속. 브로튼(William R. Broughton, 1762~1821)은 Prince William Henry 號를 이용해 1797년 10월 14일 부산 용당포에 입항했다. “We were well over on the Korean coast...about three miles; and the island of Tzima, from south to S. 23° E. eight or nine leagues.” William R. Broughton,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 (London: Frank Cass & Company Ltd. 1967), 328.